

# “국회의원 3선 연임 막고 세비 깎아야”

## “100만평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하겠다”

**선택 4·11**  
D-9

광주·전남 총선후보 이색 공약

4·11 총선에 출마한 광주·전남지역 각 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는 이색 공약들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및 세비 인하 등 특권을 제한하는 공약은 물론 대기업 유치 공약 등도 눈에 띄었다.

◇ 정치개혁=무소속 정남준(광주 서구 을) 후보는 국회의원들이 들으면 “설득할만한” 공약을 내걸었다.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과 국민소환제 추진이다. 국회의원 3선 연임을 막고 임기 도중 부채나 정책 실패가 있는 경우 주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소속 김범태(고흥·보성) 후보는 국회의원 세비 인하와 평생연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 많은 급여를 줄이고, 국회의원 생활 하루만 해도 65세 이상이면 120만 원을 받는 평생연금을 없애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 복지=통합진보당 윤민호(광주

북구 을)·김관희(광주 동구) 후보는 청년 실업자에게 월 60만 원의 취업 촉진수당 지급과 월세 15만 원짜리 공공 월류 10만 가구 건설, 공공 기숙사 10만 가구 공약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또 오는 2020년부터 군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고 사병임금을 110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냈다.

진보신당 안영돈(광주 북구 을) 후보도 전·경·의 제도 폐지 및 군복무기간 단축, 사병임금 현실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택했다. 안 후보는 또 국립대 등록금 및 기숙사비 폐지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안 후보의 공약 중에서 성직자 세금 과세도 눈에 띄었다.

민주통합당 박혜자(광주 서구 갑) 후보는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주부 수당 신설 검토를 공약에 포함시켜 눈길을 끌었다. ‘주부 수당’은 3자녀 이상을 보유하거나 노인을 부양하는 주부에게 일정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러한 이색 복지공약은

공약도 내걸었다.

무소속 송갑석(광주 서구 갑) 후보는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 삼성전자, 신세계백화점 등 지역 대표기업과 계약한 특수목적 설립을 공약했다. 기업과 협약을 통해 매년 신규 필요 인력의 일정비율(졸업생 20% 이상)을 우선 채용하는 방안이다.

◇ 개발 및 기타=무소속 정용화(광주 서구 갑) 후보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부지에 광주 미래성장동력인 응합산업단지 조성을 공약했다.

무소속 김영성(광산 갑) 후보는 삼성반도체 공장 100만 평 개발장을 공약했다. 150만 광주시민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 위원회를 설립해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최적의 환경과 조건을 제공하고, 삼성그룹 이전 회장을 설득하겠다는 계 구체적 추진 계획이다.

하지만, 이 두 공약은 민간기업이 직접적인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무소속 김경진(광주 북구 갑) 후보는 부장검사 출신답게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검사장계위원회 외부인사 확대 및 피의사실 공표 책임을 강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통합 광주지역 총선후보 6명

“야권연대 오병윤 후보 지지해 달라”

민주통합당 광주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이 광주·전남 유일한 야권연대 후보인 광주 서구을 통합진보당 오병윤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4·11 총선 광주지역 민주통합당 후보들은 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서구을 애원 단일후보인 오병윤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통합당 강기정·김동철·이용섭·장병완·박혜자·임현우 후보는 이 날 호소문을 통해 “4·11총선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을 단호하게 심판하는 선거”라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애원 단일 후보인 오병윤 후보를 당선시켜 애원연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국립대 등록금·기숙사 비용 폐지  
3자녀 이상 보육 ‘주부수당’ 지급  
광주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제시

광주·전남 7만3687명

5~6일 부재자 투표

광주시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전남지역 4·11 총선 부재자 투표(5~6일) 대상자 수가 7만3687명(광주 2만757명·전남 4만612명)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광주·전남지역 선거인명부 작성결과 등재된 선거인 수(광주 110만9076명·전남 152만5687명)의 1.6%에 해당된다. 광주는 제18대 총선 당시 2만6411명에 비해 1164명이 늘어났고, 전남은 44만15명보다 2097명이 늘어난 수치다.

부재자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안내전화(국번 없이 1390번)로 확인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투표도우미 신청하세요

시선관위, 장애인·노약자 등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11일 장애인과 노약자 등 거동불편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위해 광주 소방안전본부, 사단법인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해 ‘투표 도우미’ 차량을 운행한다고 1일 밝혔다.

투표 도우미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은 1일부터 11일 오후 5시까지 각 구 선거관리위원회와 119,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600-8900)로 신청하면 된다.

투표 도우미 차량은 거동불편 선거인이 있는 장소에서 투표소까지 훨씬 더 편리하게 차량으로 왕복 운행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현 “민간사찰 책임전가 파렴치”



무소속 박현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국민에게 사파해 야할 청와대가 그 책임을 오히려 지난 정권 탓으로 돌리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여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불법사찰 문건의 80%가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됐다고 발표한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이같은 빼어난 사례인식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뛰어난 정치철학과 도덕성이 상실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채언 “탈당·복당 인물 희망없어”



통합진보당 이채언 광주 북구 예비후보는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광주는 민주정치 발전의 중심이었지만, 그 선택은 정권 교체를 위한 인물보다 당을 키우는데 주력했다”며 “변화의 힘, 통합진보당에 힘을 살려 달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민주통합당 인물들은 스스로를 줄 모르고 늘 다른 인물의 그늘에서만 카운트된다”이라며 “탈당과 복당은 밥 먹듯 하는 낡은 정치로는 지역에게 정권교체의 희망을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녹색당 광주시당 준비위 발족



무소속 송갑석 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는 지난 28일 ‘농성·화정동 하수관개 BTL 2관로 안전공사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를 방문,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주민 의견도 듣지 않고 대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며 “광주시 등에 지침 역학조사·건물안전진단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선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갈지자 행보’ 김종식 서구청장

민주 복당 신청 불구 지역 방문 박근혜 새누리 당대위장 동행 아리송

김종식 서구청장이 지난 30일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장의 광주 방문에 동행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청장은 “지역을 방문한 박 위원장에게 복지관 건립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민주통합당 복당 신청까지 했던 김 구청장이 총선 기간 중 여당 선대위원장의 일정에 함께 한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광주진보 연대도 1일 논평을 통해 “김 청장의 행보는 흡사 새누리당 선거운동원 같은 행태를 연출했다”며 “4·11 총선을 눈 앞에 둔 시점에서 특정 정당 행사에 참석한 것은 주민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김 구청장의 이 같은 부적절한 처신을 꼬과하지 않을 것이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식 광주 서구청장이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과 우산 속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부정선거 감시단원 폭행

전남도선관위, 6명 고발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부정선거 감시단원을 폭행하는 등 불법 선거 운동 혐의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달 27일 무안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 단속에 나선 선거부정 감시단 4명을 폭행하고 카메라를 부수 혐의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농성동 리더스하이 주택전시관



사 업 명	(주)혜주주택전시관 및 사옥건축공사
사 업 장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5-1번지
대 지 면적	2,411.20㎡ (729.39평)
용 도 지 역	일반미분지구, 최고도지구, 준주거지역
건 폐 을	59.53%(법정 : 60%) 용적률 478.73%(법정 : 480%)
규 모	지하 1층 지상 9층 최고 높이 55.50m
건 축 면적	1,435.47㎡(434.23평) 건축연면적 11,543.18㎡(3,491.81평)
주 차 대 수	80대(법정 72대) : 본관 24대, 부설주차장 56대
승용차 강기	11인승(4대), 15인승(1대) 5대
에스컬레이터	상, 하 전용왕복 에스컬레이터 시공 : 1층~7층까지 설치
용 도	근린생활시설(금융, 소매점, 일반음식점), 문화체육시설 및 업무시설

### 종별 면적 개요

층 별	면적	평	총 고	용 도
1 층	1,374.92	415.91	4.8m	근 居, 업무시설, 기계실
2 층	1,346.28	407.25	7.5m	문화 및 접객시설(전시장)
3 층	1,355.08	409.91	7.5m	문화 및 접객시설(전시장)
4 층	1,359.78	411.33	7.5m	문화 및 접객시설(전시장)
5 층	1,360.28	411.48	3.75m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6 층	665.60	198.32	3.75m	업무시설(사무소)
7 층	1,375.18	415.99	4.8m	업무시설(사무소)
8 층	1,385.18	419.02	4.8m	업무시설(사무소)
9 층	1,330.88	402.59	4.5m	업무시설(사무소)
소계	11,543.18	3,491.81		

장부기록(감정가)	14,000,000,000원
매매 예정 가격	12,000,000,000원
현 공 정 을	약 85% 진행
적 용 가 능 용 도	예식장, 주택전시관, 업무시설, 컨벤션센터, 일반전시관, 교육장, 학원시설 및 실내 휴트니센터, 워터파크, 영화관, 극장, 종교집회 시설 병원 등
	최대 총고가 7.5m 이므로 다양한 건축물의 시설군, 용도군 도입 가능 함

문의처 : 010-3625-6984

공고 제2012-2호

### 신입직원 채용공고

목포수협은행 협동조합에서 수신의 품질과 서비스를 창조해 나갈 유능하고 평생을 헌신하는 신입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채용구분	모집분야	채용인원	비고


<tbl\_r cells="4" ix="2" maxc